

# 피해복구 앞장 · 일상회복 박차

### 익산시, 피해액 400억 육박... 공공시설 상하수도 98% 도로 · 산림 70% 복구율

시는 주민들의 호우피해 접수와 상하수도 도로 산림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앞장서며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균 479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익산시 재산피해액이 지난 26일 기준 388억원에 달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로 · 하천 등 공공시설 965곳과 축사 · 주택 · 상업시설 등 사유시설 498곳이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커 주민 재산피해 접수 1만717건 중 1만219건 95%를

차지하며 피해액은 205억원이다.

피해면적은 비가 4.100ha로 가장 넓다. 뒤를 이은 시설면적은 590ha(비닐하우스 9,790동)로 전체 재배농가 68%에 해당하는 1,209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접수항목에서 제외된 농기계 1만100여 대, 약200여억원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와 직원들을 음면동에 투입해 이달 말까지 NDMS 입력이 완료되면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공공시설 분야는 총 965건의 피해 중 589건이 조치가 완료돼 61%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상하수도 94%, 도로 71%, 산림 70% 복구가 진행됐다.

공공시설분야 피해접수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자체 해결하고, 하천 문화재 농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104건, 182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완료한 상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접수 입력을 31일까지 마무리해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가 지난 27일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망성면 수해 농가 주택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 침수 농가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 익산시, 주택과 주거지원센터 직원 등 10여명 망성면 수해농가 찾아

익산시가 지난 27일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망성면 수해 농가 주택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주택과 주거지원센터 직원 등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망성면 침수 농가 주택을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침수 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훼손된 출입문과 물막이 목재갈래받이 철거 작업, 단합이 불량한 출입문 보수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소금 등 필수용품이 없어 음식을 만들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물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 농가 지

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방문한 피해농가 어르신은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찾아와 우리 집을 점검하고 고쳐주시 정말 고맙다"며 "하루 빨리 복구작업이 마무리돼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수해 현장을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선정

###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 휴가맞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기대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상품권을 환급 받는다.

지난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해 총 24.1억 원 예산을 들여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 장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며 도내에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환급액 1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

증에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부스 방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점포(할어29, 선어40, 건어80, 수산가공품), 수산물식당(삼차림식당, 횡집3), 휴식·문화 공간 등으로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중에 구매점포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지참해 운영부스 방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점포(할어29, 선어40, 건어80, 수산가공품), 수산물식당(삼차림식당, 횡집3), 휴식·문화 공간 등으로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수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농촌관광객 10만명 돌파... 지역 경제 활성화

익산시 농촌관광이 10만 관광객 돌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시는 농촌관광 확대를 위해 캠퍼우를 적극 펼쳐 7월 현재 기준 뉴욕 퀸즈 한인교포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광객 10만7,505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관광 자원 98개소를 토대로 맞춤형 농촌관광 여행상품 33코스를 개발·운영해 다양한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전문가와 1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현장 포럼을 거치며 핵심수요층의 농촌 관광 욕구를 파악해 마련한 세부 프로그램을 덕분이다.

주요 여행상품으로는 △수은마을(말



기·메론 파기) △용머리 고을(토마토 파시) △다송무지개매화마을(고구마 빵) △미륵산골(푸드 테라피 한박스테이크) △산들강양포(블루베리 케이크) △죽정마을 대파·힐링팜(두부 만들기) △함리두레미당(미인 떡볶이) 등이 농산물 수확과 체험으로 건강할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인기가 높다.

또한 △두동편백마을(천연 화장품)

△풀빛향기 송정마을(천연 염색) △성당포구 금강체험관(비빔밥) 열차) 등 다양한 농촌문화체험 또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다이로움 시골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문화·역사 관광지를 포함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농촌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농촌관광 인프라 개선, 농촌관광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농촌관광객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준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남원 원예농협 고향사랑 상호기부

군산시는 지난 28일 남원 원예농협이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군산 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과 남원 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간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상호 교차로 이뤄졌다.

특히,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특산물을 주고 받아 지속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산, 남원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남원 원예농협 김용현 조합장은 "원예농협 간의 상호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실천 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준 군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산과 남원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보건소, 코로나19 증가세 방역 수칙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여름철 환기 수칙 준수,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통계가 6월 3주 588건, 7월 3주 1,349건으로 2배 이상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지난 6월 1일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로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